

르 꼬르뷔제의 後期 建築的 志向에 관한 연구

-주지사 관저 계획을 중심으로-

이영

(경원대학교 건축·실내건축학부 부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건축이 이론 논리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적용 논리에 의해 변화되는 독자적 과정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적용 논리란 '형태'라는 건축의 '구체적 사실'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논리체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의 구체적인 형태가 구성되는 원리와 과정을 '르 꼬르뷔제의 주지사 관저 계획안'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즉 르 꼬르뷔제가 그의 건축활동 전반부에 주장하였던 '새로운 건축을 위한 5원칙'이란 이론 논리가 그의 후기 활동시기에 계획된 인도 편잡주 찬디가르 시의 주지사 관저에서 어떠한 실제적 적용논리로 변모되어 나타나는지 밝혀내도록 한다.¹⁾

1951년 통상성당에서 보여준 변신 후에도 르

꼬르뷔제는 지역적 표현과 기계미 표현이라는 두 가지 경향을 함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으며, 주지사 관저는 미처 지어지지 못하고 계획안으로서만 존재하지만 1920년대의 '들어 올려진 상자'로 대변되는 사케이기에 그의 후기 건축 경향 파악에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기계미 추구의 태도는 꾸준한 변화의 수순을 보이게 되는데, 주지사관저에 적용된 '4가지 주거형식'과 '5원칙'이 적용된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과 변화되거나 추가되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의 원칙을 불변요소와 변화요소의 관계로 해석하고자 한다.²⁾

인도라는 동일한 지역의 각기 다른 건축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건축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축 유형적 특징과 설계과정의 분석을 통해 '4가지 주거형식'과 '5원칙'이 단순히 절대적이며 선언적 성격만이 아닌 수정과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재해석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지사관저의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들이 르 꼬르뷔제의 後期 建築的 志向중

1) 쟁크스는 '5원칙'이 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지만, 베네볼로가 주장하였듯이 르 꼬르뷔제의 작품은 우선 '5원칙'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자의적 해석이 아닌 올바른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5원칙'은 초기 작품에서 적용되었던 보편적 주문법을 벗어나 보다 수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중 하나의 어휘가 바로 브레이크 슬레이유이다.

2) 제오프리 베이커가 주장하였듯이 르 꼬르뷔제의 작품이 연속적인 발전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일단 동의하지만 발전이라는 단어를 변화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면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찬디가르 신수도 계획이 수립된 1948년 이후부터 주지사 관저 계획이 실질적으로 백지화되는 1956년경까지 작성된 주지사 관저 도면과 문헌기록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의 일반적인 접근은 1차로 도면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2차로는 분석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라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연구의 대상인 '주지사 관저'와 관련된 문헌과 현존하는 도면을 위주로 주지사 관저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상의 특징적인 변화들을 채록한 뒤, 이를 토대로 주지사 관저 계획의 일반적인 특징들과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된 흐름을 정리한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의 특징들이 최종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후기 확정안을 중심으로 르 꼬르뷔제가 그의 초기 건축활동기에 주장하였던 '새로운 건축을 위한 5원칙'과 '4가지 주거형식'이 어떤 양상으로 적용되었는지 분석하여 소결론을 유도한다.

최종적으로 이들 소결론의 검증으로서 '주지사 관저' 계획 이후에 인도에 지어진 방직자협회회관(1954)과 쇼단주택(1956)과의 비교를 통해 '주지사 관저'에서 나타나는 후기적 건축지향들이 지역적 영향에 의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결과만이 아니라 초기활동기에서 주장된 원칙들에 의한 또 다른 실험 결과들임을 밝혀낼 것이다. 결국 주지사 관저를 비롯한 인도 건축물들의 프로그램에 의해 형태가 귀속되지 않는 르 꼬르뷔제 건축의 일반적인 경향들을 유사기능을 가진 브라질 대사관과의 비교로 증명할 것이며, 이들은 결론적으로 사보아 주택으로부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례로서 인식될 것이다.³⁾

3) 르 꼬르뷔제의 건축물에는 동일 기능의 건물들에 형태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경험하였거나 설계하였던 다른 용도의 건물과 더 관련이 있다는 폰 무스의 견해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이 된다.

2. 주지사관저의 배치적 특징과 기능

2-1. 행정지구계획의 배치 특징

르 꼬르뷔제가 새로운 인도를 위한 찬디가르 신수도 계획에서 해결해야 했던 첫 과제중의 하나는 히말라야산맥을 배경으로 한 넓은 평지 위에서 어떻게 자연경관을 고려하며 건축물 상호간에 서로 적절한 크기감(Scale)을 부여할 것인가 이었다. 이는 르 꼬르뷔제가 부지에 관한 첫 스케치를 하면서 파리의 개선문에서 콘코드 광장을 거쳐 루브르 박물관에 이르는 거리의 배치도를 행정지구 계획안과 비교하여 치수를 결정짓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⁴⁾ 또 하나는 삼권분립의 정치적 상징성을 어떻게 건축물들의 상호배치관계 속에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삼권을 상징키 위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주지사관저를 중심으로 좌측에 고등법원과 우측에 국회의사당을 배치시켜 하나의 질서를 창조하였다. 이에 따라 주지사 관저는 찬디가르 전체 도시계획중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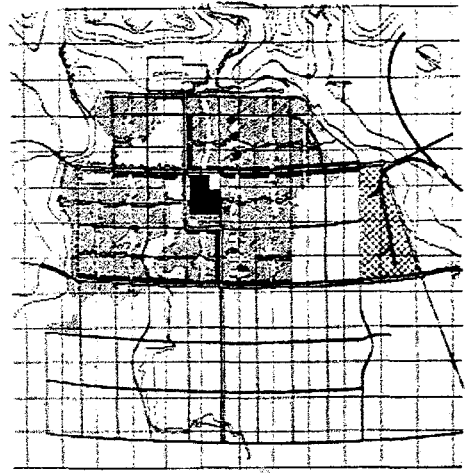


그림 1. 찬디가르시 전체 계획

4) 배치에서 각 건축물의 치수는 현지를 답사한 후 축소 수정되었다. 특히 주지사관저계획 초기에는 모듈러에서 큰 치수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거인을 위한 계획안이 되고 말았으며, 다시 작게 조정되어 인간적인 척도가 되고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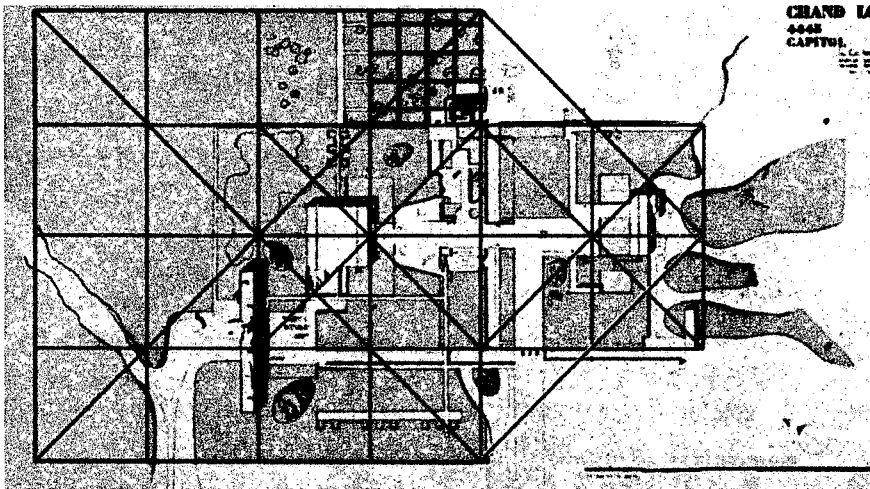


그림 2. 행정지구 최종 배치도에 나타난 기하학적 질서
 전체 도시와 연관된 격자 패턴은 기념비적 기둥에 의해 암시된다.
 왼쪽(종합청사) 중앙(국회의사당) 위(주지사 관저/열린 손) 오른쪽(고등법원)
 초기에 고층으로 계획되었던 종합청사는 길게 누운 형태로 변경되었다.

지구의 북쪽 최상단부에 위치하여, 전체 행정 지구를 조망할 수 있는 배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의 기하학적 골격은 광대한 평야에 스케일감을 부여하여 척도를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

행정지구의 배치는 전체 평지에 크기감각을 부여하기 위한 큰 격자 속에서 나뉘어진 작은 격자들의 질서 속으로 파생되어나간다. 우선 찬디가르시의 몸체부분을 이루는 격자체계가 그대로 머리부분으로 연장되어서 그 격자는 모서리를 나타내는 기둥에 의해 암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주지사관저, 국회의사당과 행정동이 대각선방향으로 놓인다.(그림2) 이의 동쪽에 시 중심의 상업지구로부터 직선으로 연결된 보도와 차로가 주지사관저와 이어져 있으며 그 동쪽에 이 격자의 1/4크기로서 보다 작은 기둥으로 모서리가 암시된 격자 속에 고등법원이 대응되게 배치되어있다. 이 격자는 주지사관저의 뒤뜰에서 보다 작은 격자로 나뉘어지면서 전체의 배치 내에서 부분적 크기감각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도록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행정지구의 기하학적 기본형상은 이들 기둥들을 이어보면

큰 정방형과 두 개의 작은 정방형이 서로 겹쳐져 있는 형태인데, 이것은 르 꼬르뷔제가 전체시의 격자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또한 보도와 차로로부터의 경관적 균형도 유지하려는 배려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법원 건물과 그 주변의 반사연못 등의 치수도 모두 모듈러의 치수를 채택해서 모두 비례관계 속에 있다.

주지사 관저는 남서향을 건물의 전면파사드로 구성하도록 계획되어있다. 주지사 관저의 전면으로는 행정지구의 전경이 자리잡고 있고, 배면에는 주지사 관저에 딸린 정원이 자리잡고 있다. 엄격한 보차분리의 시도로 차량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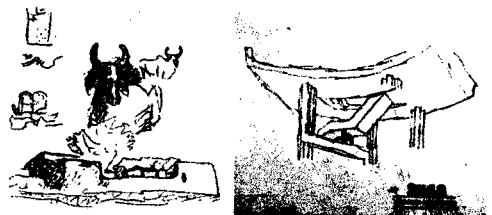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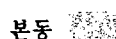
그림 3. 르 꼬르뷔제의 스케치중 소의 모습과 주지사 관저의 욕탑층 디자인의 비교

은 1층으로 유도되었으며, 보행자(민원)는 광장 레벨에서 2층으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의 향이 남서향인 정면 쪽에는 블레이즈솔레이유를 부착하여 일사량의 조절을 피하였으며, 건물 내부에서 실의 배치는 광장 쪽으로 거주공간을 배치하고 배면 정원 쪽에는 서비스공간과 주지사전용공간을 배치시켰다. 건물 외관의 형상중 옥상공간에서 지붕점 옥상으로 처리된 부분은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쳐 들린 소뿔의 모양을 하여 전면광장에서 보이는 관저의 상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그림3)

2-2. 주지사관저의 구성과 프로그램 분석

주지사관저는 광장레벨을 기준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서 집무와 주거, 각종 연회시설을 수용하는 주동, 경비동과 업무동으로 구성된 부속동이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주지사 가족의 주거공간)과 5층(옥상정원, 5층 중층-옥탑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층은 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사 관저는 관공서의 기능과 주지사 개인 및 가족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주거가 혼재해 있는 복합용도의 성격으로, 세부적인 기능(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주동의 1층과 중1층은 관저 진입에 따른 접수,

표 1. 주지사 관저의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

구 분		주지사관저
프로그램 유형		의전기능과 주거기능의 혼합용도
배치 형식		주동+부속동
기능 결합방식	동분리	의전, 개인집무, 접객, 주거(주동) + 사무, 경비(부속동)
	층분리	1/중1층: 차량동선진입, 사무, 경비 2/중2층: 로비, 의전, 개인집무 3/중3층: 객실 4층: 주거 5층: 옥상정원
형태구성		
부속동		
본동		

대기를 위한 실들과 수직적 코어, 주방과 배선 등의 서비스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무동과 경비동이 부속동으로 연결된다. 2층은 일반민원인인 보행자들의 주진입을 위한 대로비공간과 접객 연회 공간이 주된 기능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2층은 상징적으로 처리된 공중복도에 의해 연결된 주지사의 집무실과 수직적 코어가 차지한다. 3층(중층포함), 4층은 각각 방문객과 가족들의 주거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정원인 5층과 옥탑형식 구조물로 이루어진 중5층에서는 가족의 개인적 휴식과 특별한 연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부속동과 본동의 매스처리에 대한 르 꼬르뷔제의 지향을 보면 여전히 20년대의 들려 올려진 입방체 건축(cubic architecture)에 대한 경향이 주도적 건축유형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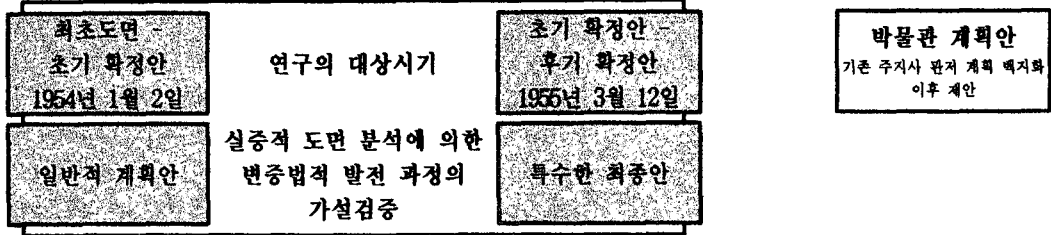
3. 주지사 관저 계획의 진행과정

계획입안단계서부터 실시단계 직전까지의 모든 주지사 관저 도면들을 정리해보면 주지사 관저 계획은 크게 3가지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별 계획은 기본적인 주지사관저의 구성과 형태가 완성된 초기 확정안, 전체적으로 축소된 규모에, 구성요소들의 점진적인 변화가 확정된 후기 확정안(실질적인 최종안으로 보여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지사 관저 계획 백지화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박물관 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지사관저로서 계획된 초기 확정안부터 후기 확정안 까지 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5)

이러한 두 차례의 계획안을 직접 비교해 본다면, 주지사 관저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르 꼬르뷔제가 추구하였던 의지가 좀더

5) 전체 도면은 초기 개념을 정리한 초기 확정안인 54년 1월 2일자 도면과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안으로 생각되어지는 후기 확정안(평면기준)인 55년 3월 이후의 도면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각 단계의 확정안 사이에는 다양한 스케치와 개념도면들이 그려졌다.

표 2. 주지사 관저 계획의 발전 과정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르 꼬르뷔제가 초기의 주택설계에서 보여주었던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상의 특징들, 즉 초기의 '일반적' 계획안에서 급진적인 변화들을 수용하여 다시 '특수한' 최종안으로 발전된다는 설계과정상의 특징들이 후기 건축물인 주지사 관저의 설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최종 확정안이 보여주는 내부구성과 형태구성상의 특징들은 다음 장에서 다룰 주지사 관저에 적용된 '5원칙'과 '주택의 4가지 구성'의 특징들을 밝혀낼 1차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주지사 관저 계획안은 54년 1월 2일에 초기 개념들을 정리하여 초기 확정안이 등장되고, 이러한 초기 확정안은 다시 55년 3월에 평면도를 시작으로 6~7월 사이에 작성된 후기 확정안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차례의 확정단계를 각각 초기 확정안(1954)과 후기 확정안(1955)으로 이미 명명하였으며, 이 두 단계의 과정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Timothy Benton은 그의 저서 *Drawing and Clients: Le Corbusier's Atelier Methodology in the 1920s*(AA files no3, 1983, pp42~50)에서 1920년대의 주택의 설계방법에서 나타나는 변증법적인 특징들을, 실증적 도면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성격의 계획안과 급진적 변화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확정되는 특수한 최종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르 꼬르뷔제는 특정 대지상황이나 적정규모를 무시한 채 자신의 건축의지를 정형화한 이상적인 일반안을 제시한 뒤, 변증법적 변화를 통하여 완성되어 진다고 밝히고 있다.

3-1. 동선체계의 변화

주지사 관저의 내, 외부 동선체계의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초기 계획의 일반적인 구성이 후기 확정안까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차량동선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면파사드의 1층 외벽 밖으로 양방향의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초기 확정안으로 추정되는 54년 1월 2일자 도면을 중심으로 내부공간간의 동선체계를 확인해 보면, 관저주동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위치는 전면 파사드를 기준으로 좌우 측에 각각 1개소, 주차장 쪽으로 1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좌측의 출입구는 관저의 주출입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우측의 출입구는 배선실 등의 서비스공간과 연결된다. 주출입구를 통과한 동선은 180° 방향을 전환하여 중앙계단을 통해 상부로 연결된다. 또한 주출입구 우측 상부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2층의 주지사 응접실과 사무국이 수직으로 연결되며, 서비스 공간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와 등을 맞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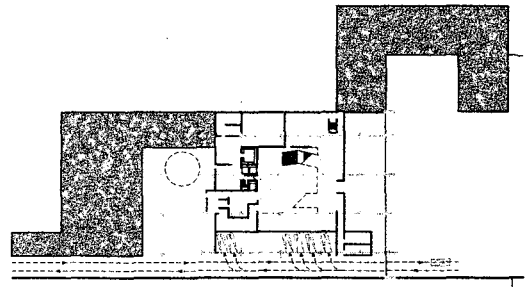


그림 4. 외부진입과 내부 주요 동선체계 도식

고 일반엘리베이터가 자리잡고 있다. 2층 이상의 상부는 중앙계단과는 별도로 처리된 수직동선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그림4)

이러한 초기 확정안의 기본적인 동선체계는 후기 확정안까지 그 기본적이 골격이 유지한 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변화로는 먼저 외부 진입도로가 1층 외벽 내부로 포함되어지며, 주지사 전용의 출구와 수직 동선이 배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존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그 성격에 따라 위치가 다소 변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기본적인 동선체계의 구성은 실의 구성과 용도가 확정됨에 따라 다소 위치가 변화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건물 외부에 있던 진입도로가 내부로 유입된 과정은 주지사 관저 규모의 축소의 문제와 결부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2. 구조시스템의 변화

주지사 관저의 구조시스템은 3 bay(4*4)를 가진 격자구획으로 특징기능 예를 들어 수직동선을 위한 별도의 격자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규칙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르 꼬르뷔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어 결정된 시기에 3 bay 와 4 bay라는 두 가지 형식을 놓고 고민하였다는 점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완성된 중간 도면들에는 오로지 3 bay 로 구성된 구조시스템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르 꼬르뷔제는 초기의 이상적 규모에서 실제적인 적정규모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격자구획의 변형이 아닌 기둥간격의 조정을 통한 규모축소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르 꼬르뷔제는 각각 다른 기둥간격을 가진 3 bay 와 4 bay 시스템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정방향의 기둥이 아닌 +자형 기둥을 사용함으로써 내부 공간에서 기둥격자체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표 3. 기둥격자체계의 변화

계획 단계	참고도판 (도면종류-년-월-일-도면번호)	특징
	단-53-5-27-5339	3bay (9m)+9m+9m+9m+(9m) 4bay (9m)+9m+9m+9m+9m+(9m) (8m)+8m+8m+8m+8m+(8m)
	단-53-9-6-4150	3bay 변형격자구획을 암시 단면개념
초기 확정안 54.12	단-54-2-2-3879 단-54-2-2-4395 평-54-2-2-4440	3bay (5m)+10m+10m+10m+(5m) 4bay (4m)+8m+8m+8m+8m+(4m)

3-3. 개실의 분화와 발전

주지사 관저 1, 2층의 경우 동선체계의 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선체계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개실의 확정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3층과 4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초기 확정안과 후기 확정안 사이에 개실의 위치와 구성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단 54년 3월 24일 도면을 기점으로 후기 도면들의 경우 벽체가 기둥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초기 도면의 경우 벽체의 두께가 표현되지 않은 개념적인 도면으로 완전한 벽식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초기 확정안과 후기 확정안을 연속적으로 비교해 보면 벽체의 구성이 좀더 명확하게 구조체로부터 분리되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4층의 경우 각 개실의 디자인 요소가 다른 층과는 달리 곡선적 디자인 주된 이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주지사 관저의 다른 층이 사무 및 행정 업무를 수용하는 공간임에 비하여, 4층은 주지사와 그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내부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층의 평면을 연대순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최초의 도면인 51년 3월 17일자 도면의 경우 자유로운 방향성을 가진 비정형적 형태의 개실 들이 기둥격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 혹은 몇 개의 실이 결합된 듯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53년 10월과 11월 도면을 살펴보면 코어위치의 변동에 따라 독립적 구성의 실들이 상부로 이동하게 되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들은 하부로 이동하는 반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후기 확정안으로 발전되는데, 최종적인 확정안을 보면 곡선의 주거공간과 직선의 서비스공간으로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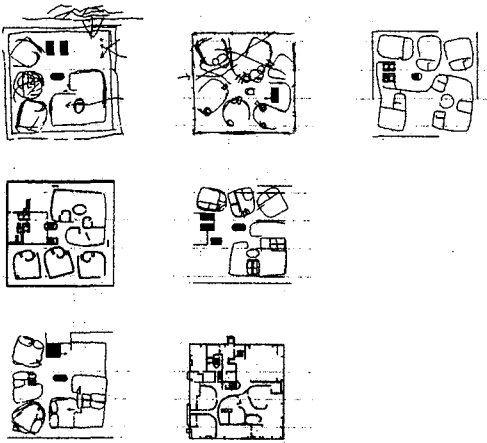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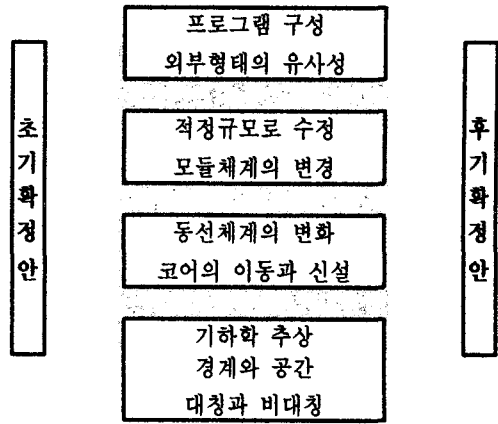


그림 5. 위에서부터 디자인 반전을 통한 초기 확정안의 개념, 초기확정안과 반전1, 반전2와 후기 확정안

3-4. 1954년 1월 계획안과 1955년 3월 이후 계획안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지사 관저가 1954년 1월에 초기 확정안이, 1955년 3월을 기점으로 동년 6-7월 사이에 모든 도면들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지사 관저 계획의 변화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지사 관저 계획의 흐름과 쟁점들



우선 첫 번째로 계획입안단계에서 이미 계획의 대부분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비교적 커다란 변화 없이 최종적인 후기 확정안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거론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는 전체규모가 적정규모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때 프로그램의 축소 혹은 공간의 삭제가 아닌 기둥모듈에 대한 조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규모의 축소와 함께 세 번째로 동선체계의 변화에 따른 코어의 이동과 신설 등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일례로 초기 개념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주지사만을 위한 코어와 출입구, 2층의 민원인 출입구 등은 계획이 후반부에 오면서 실제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4. 5원칙과 4가지 주거형식 적용; 고정요소와 변화요소를 중심으로

4-1. 5원칙과 4가지 주거형식의 구성과 원형

주지사 관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5원칙으로 항목으로 재구성하기 전에 '도미노계획'이라 사보아 주택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을 통해 나

타난 5원칙의 일반적인 구성과 원형적 의미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5원칙의 적용과정에서 얻어지는 형식면의 성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4가지 주거형식이 단순한 유형적 비교로서 한정되는지 5원칙의 정립을 위한 부연인지를 논하도록 한다.

먼저 5원칙의 배경에 대해 잠깐 언급하기로 하자, 1927년 Weissenhof 주택전시회를 통하여 5원칙이 명시화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5원칙이 정식화되었는지 그 시기를 명시하기는 어렵다. 단지 Weissenhof 주택전시회가 5원칙 발표의 계기가 된 점이 분명하므로, 비슷한 시기에 계획하였던 쿡 주택과 가르체 주택을 5원칙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인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의 경우 실제 설계상의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 르 꼬르뷔제의 이상적인 의도들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이상적 대지 위에 계획된 도미노 계획을 중심으로 10여 년간의 건축 활동들의 결과들을 외부적 요인들이 배제된 Weissenhof 주택 전시회를 통해 정리 발표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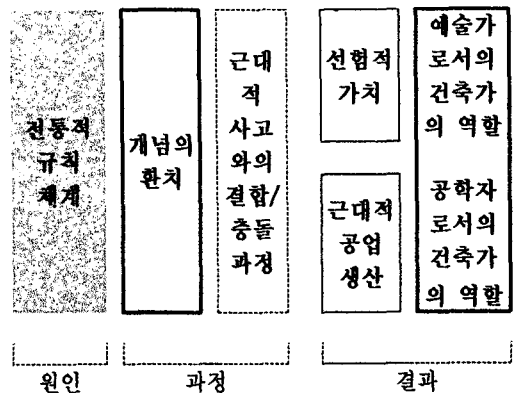
이미 많은 건축가와 비평가들이 도미노계획의 성과에 대해 연구와 논쟁을 벌여왔다. 그러한 논쟁의 대부분은 도미노 계획의 상반된 성과에 대한 견해로서 크게 2가지의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도미노 계획이 과연 그 당시의 기술수준을 감안해볼 때 과연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논쟁은 도미노 계획의 건축미학적 가치에 관한 것일 것이다. 즉 독립된 골조시스템에 의한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구조체계의 구현을 통해 구성의 자유를 가져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 지식을 응용한 현실적 구조시스템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논쟁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미노 계획의 두 가지 성과 즉 경제적 기술적 측면과 건축미학적 가치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보다는 르 꼬

르뷔제 스스로 도미노 계획의 성과를 그 시기를 달리하여 다르게 언급하였던 사실일 것이다. 즉 도미노 계획의 건축 미학적 가치가 르 꼬르뷔제 스스로 의도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도미노 계획의 상반된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르 꼬르뷔제의 변증법적 사고의 모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도미노 계획이 가지는 기술적 가치와 형식적 가치라는 이중성은 그 후 르 꼬르뷔제 일생에 걸쳐 발생하는 변증법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며, 이러한 관점을 통해 5원칙이 가지는 내부적 한계와 발전과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실, 즉 5원칙이 근대적 합리주의의 사고만을 반영한 근대건축적 가치의 발현이라는 편견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란 콜크호른의 견해에 의하면 르 꼬르뷔제의 5원칙은 단순히 과거 건축의 전통의 단절과 부인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규칙체계의 인정과 변증법적인 해석과정을 거쳐 확립되어지며, 이러한 5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규칙체계와 근대적 사고가 모순 충돌되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5원칙은 전통의 규칙체계에서 출발하여 이를 다시 부인하고 수정하는 개념의 환치, 즉 고전적 건축요소 혹은 실무적 행위에서 출발하여 이것에

표 5. 르 꼬르뷔제 건축의 이중적 태도의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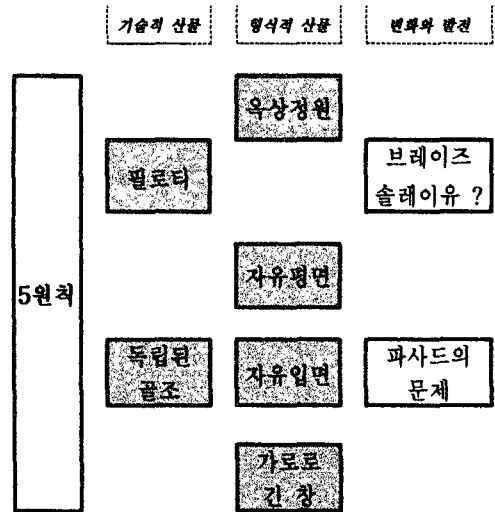
역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립되며 따라서 이러한 5원칙과 그의 건축은 우선 전통에 대한 이해와 개념의 환치라는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또한 그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에 선행적 가치로서의 건축과 근대적 공업 생산으로서의 공학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르 꼬르뷔제가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와 공학자로서의 건축가 사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⁸⁾

이러한 배경을 통해 5원칙의 각 항목들의 구성을 보면 각각의 항목들이 동등한 위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독립된 골조체계와 그것으로 인해 구축되는 노출된 외부 기둥, 즉 필로티라는 기술적 산물과 그러한 기술적 산물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가로로 긴 창, 독립적인 개념으로 부연된 옥상정원이라는 형식적 산물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형식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5원칙은 일정 기간의 작품활동을 통해 단정지어지는 결론이 아닌 이상향적 제안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변화와 발전과정을 통해 변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Alan Colquhoun은 그의 저서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MIT Press, 1981), *Displacement of Concepts in Le Corbusier*에서 5원칙이 전통적 건축요소들의 개념들의 환치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필로티는 고전적 기단의 반전이며, 옥상정원은 고전적 에디콜의 반전에 의해 발전되며, 가로로 긴 창은 고전적인 창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변형하는 과정으로, 자유로운 입면과 평면은 고전적 건축형식의 반전을 통해 확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 Alan Colquhoun, *Mor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 Le Corbusier and the Paradox Reason / The Significance of Le Corbusier*, MIT Press,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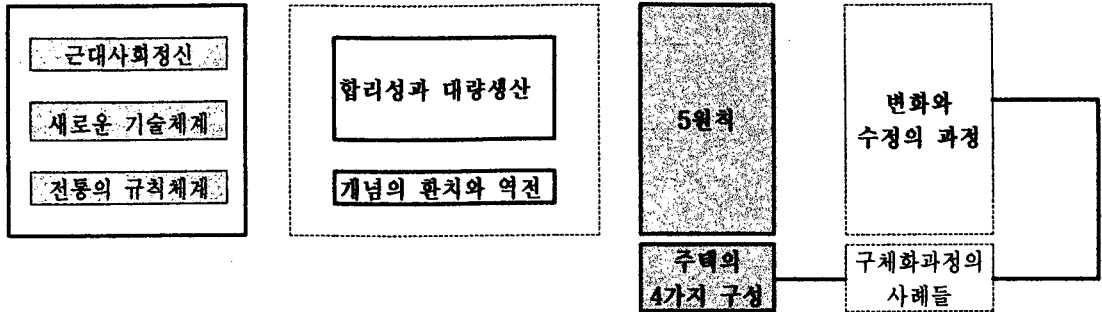
표 6. 5원칙의 이중적 구조



5원칙과 함께 르 꼬르뷔제 건축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주거형식에 관한 비교 역시 수많은 견해와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제1구성과 제2구성이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제3구성과 제4구성으로 발전된다는 프램톤의 견해와 각각의 구성방식이 일종의 완결인 제4구성의 발전단계라는 에슬라미의 견해가 가장 일반적인데, 프램톤의 경우 제1구성과 제3구성이 볼륨과 골조의 관계가 서로 상반된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제2구성과 제4구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에슬라미의 경우 각각의 구성방식에 적용된 일관된 원리와 관점 -제1구성의 비정형성이 각기 다른 구성방식의 정형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된다는-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그 완결을 제4구성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각 구성방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1923년에 완성된 라 로쉐 잔네르 주택을 시작으로 사보아 주택까지 제1구성에서 제4구성의 순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대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건축물들이 모두 거대 건축물이 아

표 7. 5원칙의 구성과 4가지 주거형식의 선언



년 개인주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거대 건축물의 경우 형태적으로 단일한 매스처리가 어렵고 도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복잡한 프로그램의 해결 등 5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4구성은 5원칙의 정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5원칙이란 이상적 논리체계가 건축물과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구성형태상의 특징들을 유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5원칙의 적용분석

주지사 관저에 적용된 5원칙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형적인 5원칙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지사 관저에 변화되는 요소와 지속되어지는 요소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변화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필로티는 과거 사보아 주택에서 사용되었던 그것과는 사용빈도와 형태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 관저에서 필로티의 사용은 1층 주출입구와 3층의 입면에 노출된 부분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지면으로부터 건물 본체를 공중 부양시키는 인상은 사라지게 된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지사 관저는 차량의 출입과 보행자의 출입이 각기 다른 층으로 구분되어 2중로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입면상에서 필로티의 개념의 확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즉 1층의 입구는 필로티에 의해 인식되나 2층의 입구는 브레이즈 슬레이유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브레이즈 슬레이유는 필로티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며, 지면에 접한 층은 좀더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그림6)

가로로 긴 창 개념은 르 꼬르뷔제가 제시한 5원칙 중에서 가장 구체화된 개념이었으며, 자신의 제안의 특색을 가시화 시켜줄 수 있는 장치였다. 그러나 사실 가로로 긴 창 개념 자체는 자유로운 입면 즉 독립된 골조 체계에 의해 구현되는 간막이벽에 의한 자유로운 입면의 구성의 하위구조로서 그 성격이 규명될 수 있다. 주지사 관저에서도 가로로 긴 창이라는 정형적인 모습은 사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로로 긴 창 개념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운 입면의 하위구조로 포함되었으며, 이제 이것은 파사드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사 관저의 파사드는 브루탈리즘적인 거친 덩어리로 초기 건축의 매끈한 표면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1930년 이후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⁹⁾ 주지사 관저는 더욱 더 조각적이며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매스의 중량감은 외피를 뚫고 있는 다양한 개구부들에 의해 파괴되어지고, 전체 매스의 기하학적 질서는 입면의 다양함과 강한 추상적 장치로 상쇄되며 중화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이성적인 외부공간과 자유

9) 1930년대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유럽의 철강부족이라는 현실적 이유와 근대건축의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이념적 이유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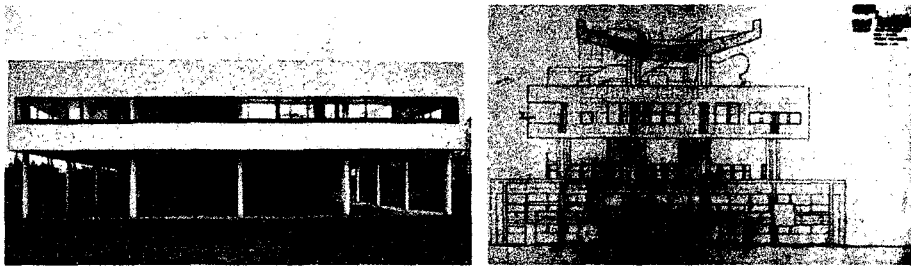


그림 6. 사보아 주택의 필로티와 주지사 관저의 브레이즈 솔레이유

관저는 브레이즈 솔레이유라는 대체물로 된 기단에 의해 지면에 접하고 이 기단 위에 또 하나의 사보아주택의 떠있는 상자가 놓인다.

주지사 관저의 외부는 매끈한 표면에서 벗어나 거칠어지고 조각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스의 중량감은 자유로운 개구부들에 의해 파괴되어지며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중화시킨다.

롭고 감성적인 내부공간의 변증법적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주지사 관저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원칙의 개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자유로운 평면의 개념과 옥상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주지사 관저의 파사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외부의 질서와 내부의 질서가 서로 대립 충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4층 주지사과 가족의 주거공간계획을 보면 좀 더 명백해지는데, 4층의 경우 옥상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층과는 평면 구성 요소 면에서 직선과 곡선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방형의 외피 속에 골조와는 상관없는 자유로운 구성을 통해 벽체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4층 평면을 분석해 보면 우선 기능별로 주기능(침실)과 지원기능(서비스공간)을 직선과 곡선의 기하학적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학적 대비는 대립이 아닌 대칭과 균형이라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체 4층의 면적의 배분을 보면 곡선부의 침실부분이 직선부의 서비스 공간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기하학적 요소들의 대비와 함께 각 공간의 우선 순위를 시각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4층의 내부구획은 X, Y 의 직교축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자 기둥의 구획과는 상관 없이 독립적이며, 비정형 적인 곡선의 벽으로 구획되었으며, 공간의 볼륨을 한정하는 벽들은 또다른 공간의 볼륨에 영향을 동시에 주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서구건축의 방과 방 사이에 은폐되어지는 포쇄공간에서 탈피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평면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그림7) 결국 이러한 내부 공간의 자유성은 외부의 순수한 기하학과 충돌하는 모순을 내포하게 되는데, 알란 콜크호온은 이러한 모순과 충돌을 르 꼬르뷔제 건축의 생성원리인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내부의 복잡하고 '뜨거운' 공간과 볼륨들의 정렬은 그것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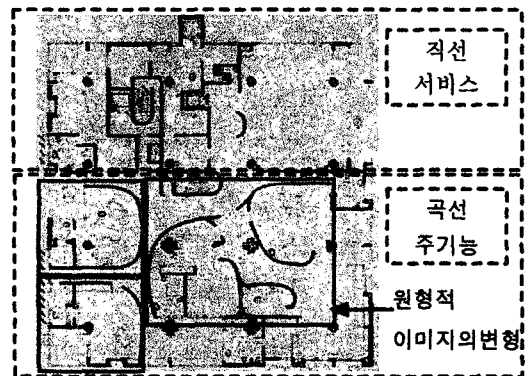


그림 7. 4층 평면의 기하학적 균형과 이미지 변형

포함하고 있는 외부의 '차가운'플라토닉 기하학의 안에서 존재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르 꼬르뷔제 자신은 이러한 순수기하학과 자유로운 형태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벌어지는 변증법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다음으로 옥상정원의 경우 일단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초기 5원칙의 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원칙 중 옥상정원 개념의 경우는 다른 항목들이 독립된 골조시스템에 의해 파생되어지는 것에 반해 독립적이며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옥상정원은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의 몫을 다시 회복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그의 후기 건축물 중에서 도시 속이 아닌 자연적인 부지에 계획된 작품들을 보면 옥상정원의 개념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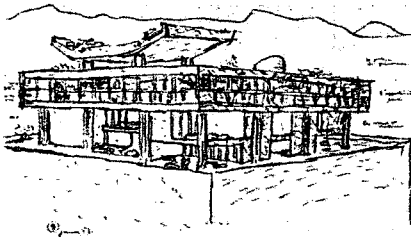


그림 8. 옥상정원과 3. 4층 외부

이런 전제하에서 주지사 관저의 옥상정원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단순히 여가의 장소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주지사 관저라는 건축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옥상정원위에 또 하나의 옥상정원이라 할 수 있는 옥탑구조물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 극적인 구성과 그 형태상의 강한 추상성을 통해 도시적 차원에서 주지사 관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개의 기둥에 의해 둘러

진 마치 인도 소의 뿔을 상징하는 듯한¹¹⁾ 각진 V자 형태의 옥탑구조물의 추상적 형태는 주지사 관저의 순수한 기하학적 질서와 대조되며 이런 대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건물규모가 왜소한 주지사 관저를 전체행정지구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그림8) 또한 본건물의 기능적 공간, 옥상정원이라는 전이공간, 옥탑구조물이라는 상징공간으로 건물 전체의 영역을 구분 지어 본다면, 옥상정원은 주지사 관저를 개별 건축물이 아닌 행정지구와 찬디가르시 전체를 향해 확장시키는 공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주지사 관저에 적용된 5원칙의 양상

필로티	고전적 벽의 부정과 재인식	브레이크 슬레이유와 필로티
옥상정원	도시적 개념으로의 확장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이성적 외부와 감성적 내부공간의 충돌과 형식적 자유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물품으로서의 벽의 구축과 빛의 투과성	파사드의 적용원칙 변화
가로로 긴 장		

4-3. 4가지 주거형식에 관한 비교

4가지 주거형식에 관한 르 꼬르뷔제의 해설에 의하면 4개의 구성중, 제1구성(라 로쉐 잔네르 주택) "축적된 구성"은 각 구성 부분이 유기적인 구성원리에 따라 내부가 스스로 펼쳐지며 그 결과 내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제2구성(가르쉐) "입체구성-순수한 구성"은 스스로 부과한 구속과 같은 순수한 외곽의 내부에 각

11) 실제로 르 꼬르뷔제가 옥탑층의 디자인을 소의 뿔에서 착안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의 전작품집을 통해 볼 때, 소와 소뿔에 대한 스케치가 상당수 등장하며, 이것의 형상을 추상화하여 디자인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0) Alan Colquhoun, Mor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The Strategies of the Grand Travaux, MIT press, pp 125-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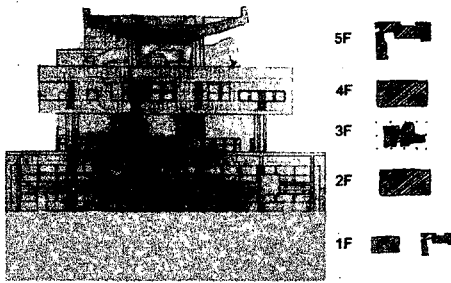


그림 9. 4가지구성과 주지사관저구성 비교

부분을 집어넣는 방법이다. 또 제3구성(까르파 쥐 저택)은 바깥쪽에 골조를 보이고 필요한 볼륨을 내부에 배치시키는 방법이라면, 제4구성(사보아 저택) “삭제된 형태”는 “외면에 관해서는 두 번째의 순수한 형태를 취하지만, 내부는 제1구성과 제3구성의 이점과 특색을 갖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지사관저의 구성 형태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의 구성 방식이 혼재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저가 여러 가지 구성수법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1층, 2층, 4층은 제2구성에 의한 방법, 즉 순수한 외곽의 형태 속에서 내부에 각 부분을 구성한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1층과 2층의 경우 주동과 부속동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주동의 순수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9) 즉, 주동에서 수용하기 힘든, 순수한 형태를 깨트리는 공간들은 별도의 부속공간을 이용하여 분배되고, 이러한 부속공간을 지하레벨로 배치하여 인지되지 못하도록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층은 평면계획상의 변화에서도 기술되었듯이 전기안에서 후기확정안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골조체계와 벽체와의 구분이 중심적인 사항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3층은 외부로 노출된 구조 속에 내부의 볼륨을 구성하는 방식인 제3구성에 의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층의 구성은 제1구성의 방식으로 각 구성부분들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

주지사관저는 이렇듯 다양한 주거형식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을 취합해 볼 때, 주지사관저는 르 꼬르뷔제의 이상향적인 건축관의 실험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거 구성방식이 표현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그의 건물이 단 한가지만의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여러 가지의 구성방식이 혼재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 자체를 르 꼬르뷔제의 계산된 의도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초기에 작성된 스케치를 통해 볼 때, 이미 각 층의 구성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지사관저 계획이 실질적 요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계획단계의 드로잉에서 중단된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으로 르 꼬르뷔제가 자신의 4가지 주거형식을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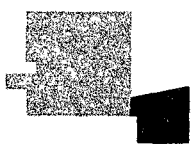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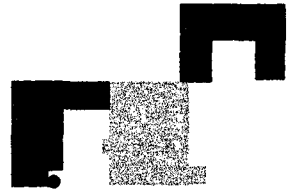
4-4. 관저 계획 이후의 인도 작품 비교:

방직자협회회관, 쇼단주택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5원칙’중에서 필로티는 브레이즈 슐레이유의 활성화와 벽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가로로 긴 창 개념은 자유로운 입면에서 하위의 성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기 건축에서 나타나는 거주하는 상자의 매끄러운 표면은 거칠고 조각 적인 육중한 매스를 가진 형태로 변화하며 외부의 기하학적 질서와 내부의 자유로운 평면이 충돌하여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이유를 지역적 영향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은 르 꼬르뷔제의 건축을 순수한 기하학을 이용한 기계미로 대표되는 전기와 지역적 배경을 표현한 후기로만 구분하게 된다.

따라서 주지사 관저의 내·외부 공간의 특징들을 유사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각기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건축물들과 비교해

표 9. 각 건축물의 프로그램과 형태구성 비교

구분	방직자협회회관		쇼단주택		주지사관저
프로그램유형	중·소규모 업무시설		중·소규모 개인주거		관공·업무 + 주거
배치형식	주동 + 부속동				
기능결합	업무(주동) + 레스토랑(부속동)		접객·주거(주동) + 부업·차고(부속동)		의전·개인집무·접객·주거(주동) + 사무·경비(부속동)
	1 2-3 4	차량동선.사무.부대 회의.테라스 옥상정원	1 2/중2 2중상층 3	차고.거실.식당.부업 침실/객실 갤러리.테라스 옥상정원	1/중1 차량동선.사무.경비 2/중2 로비.의전.개인집무 3/중3 객실 4 주거 5 옥상정원
건물형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cccccc;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div> 주동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ack;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div> 부속동 </div>				

봄으로써 후기 건축의 특징은 초기건축의 일반적 원칙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실험되어지는 하나의 건축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미노계획과 사보아주택이 이상적 대지를 배경으로 하였듯이, 주지사 관저를 비롯한 인도의 다른 2개의 건축물이 저위도 지방에 적용된 또 다른 사보아주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주지사 관저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51년 이후부터 1956년 사이에 계획되거나 실현된 주요 작품의 수는 대략 7-8개 정도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작품들이 일관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으로는 인도라는 저위도지방에 위치한 건축물 중에서 주지사 관저와 상이한 업무시설, 개인주택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직자협회회관과 쇼단주택을 선정하였다.

먼저 각 건축물의 프로그램과 형태구성을 비교해보면 <표9> 와 같이 정리된다. 즉 수평적으로는 프로그램중 주요 기능을 1:1 정방형의 주동에서 수용하고 그 외 부가되는 기능들은

부속동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직적으로는 아래서부터 정리하면 동선/부가기능-업무-주거-옥상정원의 순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볼 때, 르 꼬르뷔제의 건축은 프로그램에 따른 구분보다는 건축 유형적 비교를 통해서 접근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수직적인 기능의 배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건축에서 필로티에 의해 배려된 교통의 공간은 후기 건축물에서도 비록 건물과 지면과 견고히 접합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교통의 공간들을 배치함으로서 초기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들 각 건축물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축적 장치 즉 5원칙의 변형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모습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좀 더 후기 건축의 일반적인 특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심하여야 할 점은 이들 각 건축물의 세부적인 형태, 건축적 장치의 고안을 단순히 지역적 배경으로만 해석하기 쉽다는 것이다.

일례로 저위도지방의 강렬한 일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브레이즈 솔레이유의 경우, 이미 1928년 까르따쥐 주택에서 그 원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건축물인 파리의 유니떼 다비따시옹이나 라뚜레뜨 수도원처럼 저위도지방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직자협회회관과 쇼단주택의 배치와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사보아주택에 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직자협회회관의 경우 건물의 향이 주풍방향을 고려하여 서쪽으로 배치되어있고, 남쪽과 북쪽은 개구부가 적은 벽으로 동서쪽은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쇼단주택의 경우 역시 주풍방향을 고려하여 동서측의 열린 공간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기본적 개념은 사보아 주택에서 자연광을 유입하는데 유리하도록 형성된 남서측과 남동측의 열린 공간의 개념이 지역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념의 환치를 통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3개의 건축물이 동일한 유형적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르 꼬르뷔제 건축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별개의 건축물사이에 형태적 유사성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브라질리아의 프랑스 대사관 계획일 것이다. 브라질리아에 계획된 프랑스 대사관은 주지사 관저와 그 기능적인 구성 면에서 매우 유사한 건물이다. 하지만 브라질리아의 프랑스 대사관은 주지사관저가 행정동과 주거동이 하나의 건물로 처리된 것과는 달리 행정동이 주거동에 압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완벽하게 분리되었으며, 각동의 매스의 형태 또한 저층부의 직각각형으로 이루어진 행정동과 고층부에 원통형 주거동의 이질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형의 직각건물을 원형의 브레이즈 솔레이유가 감싸고 있는 구성을 볼 수 있는데,¹²⁾ 이처럼 형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은 브레이즈 솔레이유의 사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브레이즈 솔레이유는 유리 벽으로부터 돌출하기 시작하여 독립된 구조로 발전하게 되며, 단순한 기후조절장치에서 파사드의 주된 요소로, 5원칙의 구성요소로 발전하게 되는 르 꼬르뷔제 후기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

그렇다면 주지사 관저에서 나타났던 5원칙의 변형된 적용양상이 인도의 다른 두 건축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브레이즈 솔레이유의 전면적인 사용과 벽면의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남아 있는 필로티 역시 주지사 관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브레이즈 솔레이유의 연장 혹은 판형의 구조체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결국 브레이즈 솔레이유는 단순한 기후조절장치로부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입면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또한 필로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르 꼬르뷔제 후기 건축에서 나타나는 벽면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구조체로부터 분리된 간막이벽 개념이 확장 발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브레이즈 솔레이유에 의해 개방된 면은 일종의 무형의 벽으로서 더 이상 파사드라는 경계에 의해 내 외부가 구분 지어지지 않는 볼륨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특징은 초기의 필로티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즈 솔레이유라는 새로운 장치를 통해 필로티의 개념이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르 꼬르뷔제의 5원칙이 개념의 환치 즉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확장되고 이를 끈임 없이 변화시키고 대체시킴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된다.

12) Alan Colquhou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MIT Press, 1981), *Formal and Functional Interaction: A Study of Two Buildings by Le Corbusier*, pp 31~33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주지사 관저 계획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그 결과들을 5원칙의 고정요소와 변화요소를 중심으로 밝혀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주지사 관저 계획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초기 확정안(1954년 1월)과 후기 확정안(1955년 3월 이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초기 확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일반적인 특징들 -프로그램의 구성, 외부 형태구성의 특징, 행정지구와의 연계-은, 비교적 후기 확정안에서도 비교적 원형적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지사 관저 계획이 초기의 일반적 성격의 계획안에서 급진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확정되는 특수한 최종안의 과정을 겪는다는 티모시 벤톤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그러나 초기의 이상적 규모에서 실제적인 적정규모로 변화되는 과정과 이와 함께 변화되는 세부 동선 체계변화와 각 개실의 신설과정등을 통해 주지사 관저가 초기의 이상적 계획안에서 특수한 최종안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르 꼬르뷔제가 그의 건축활동 초기에 주장하였던 '5원칙'의 개념은 도미노 계획의 기술적 성과와 미학적 가치라는 이중적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의 과정을 통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5원칙'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체계와 근대정신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닌 전통의 규칙체계에 대한 이해와 개념의 환치를 통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 볼 때, 르 꼬르뷔제의 '5원칙'은 단순한 선언적 성격이 아닌 변화와 발전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필수로 겪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시선으로 주지사 관저에 적용된 건축

적 특징들을 '5원칙'의 시선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초기 5원칙에서 주장되었던 필로티의 개념은 브레이즈 솔레이유라는 장치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느다란 기둥으로 건물본체를 지면으로부터 부양시켜 주던 필로티를 대신하여 기후조절장치로서 고안되었던 브레이즈 솔레이유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유로는 주지사 관저가 대상 부지의 보차분리의 원칙에 의해 이중의 로비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차량의 진입하는 1층의 경우 초기 필로티와 다소 형태적으로 상이한 판형의 필로티가 대지와 접한 2층에는 반개방된 면을 가지고 있는 독립구조체의 브레이즈 솔레이유가 각각의 로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브레이즈 솔레이유의 사용을 통해 지층은 좀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지사 관저의 파사드는 초기 건축의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입방체에서 거친 덩어리를 가진 입방체로 변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내부를 한정하는 표피가 아닌 덩어리 자체 즉 볼륨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육중한 볼륨을 가진 강한 매스감은 다시 다양한 조각적 형태를 가진 개구부들에 의해 분절되며, 내·외부의 경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초기 5원칙에서 주장되었던 가로로 긴 창 개념은 더 이상 형태적으로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자유로운 입면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지사 관저가 가지는 외부 형태는 기하학적 질서로 구축된 본체와 강한 추상성을 가진 옥상정원과 옥탑구조물의 대비를 통해 그 상징성이 극대화되며, 경사진 대지의 끝에 위치한 주지사 관저는 행정지구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러한 외부 공간의 대비는 내부공간의 구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주지사 관저의 주동계획을 보면 이상향적인 정방형의 주동과 부가되는 기능들을 수용하는 부속동으

13) Timothy Benton, Drawing and Clients: Le Corbusier's Atelier Methodology in the 1920s(AA files no3, 1983, pp42~50)

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 사용된 기둥의 형태는 정방형의 직교 축을 암시하는 장치이며, 이러한 격자체계와 상관없이 구획되는 자유로운 내부구획의 대비를 4층 계획에서 볼 수 있었다. 또한 4층의 경우 내부 구획에 있어서 기하학적 대비를 통해 각 공간의 우선 순위를 시각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부 공간 역시 외부공간에서 사용된 다양한 층들과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자유로운 평면의 개념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특징들만으로 르 꼬르뷔제의 후기 건축의 일반적 특징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전기건축과 후기건축을 별개의 이론적 논리체계가 아닌 하나의 이론적 논리체계의 변화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 적용논리로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주지사 관저계획이후 인도에서의 일련의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주지사 관저를 비롯한 인도에서의 후기 작품들은 초기 건축물과 별개인 하나의 특수해가 아닌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5원칙의 형성배경에서 볼 수 있었던 변증법적 해석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봉일범, Le Corbusier의 '새로운 건축의 5원칙'의 수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2. 윤지영, 벽의 역할 변화를 통해 본 르 꼬르뷔제 후기 주택작품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대회논문집 제18권, 1998
3. 김형준, Le Corbusier의 건축형태 '생성원리'에 관한 연구: 주택의 4가지 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5
4. S. Giedion, 김경준 역, Space, Time and

- Architecture 시간 공간 건축, 시공문화사, 1998
5.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제1기계 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세진사, 1997
6. Jürgen Joedicke, 윤재희·지연순 역, Space and Form In Architecture 건축의 공간과 형태, 세진사, 1995
7. Stanislaus Von Moos, 최창길 역, Le Corbusier-Elemente einer Synthese, 르 꼬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1987
8. 르 꼬르뷔제 전작품집, 집문사
9. Alan Colquhoun, Mor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MIT Press, 1991
10. Alan Colquhou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or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 MIT Press, 1981
11. Tim Benton, The Villas of Le Corbusier 1920-1930, Yale University Press, 1987
12. William Jr. Curtis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1986
13. Timothy Benton, Drawing and Clients : Le Corbusier's Atelier Methodology in the 1920s AA files no3, 1983
14. Fondation Le Corbusier ed., The Le Corbusier Archive, Garland, 1982
15.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Preager Pub., 1972
16. Baker G.H, Le Corbusier An Analysis of Form, Van Nostrand Reinhold(UK)
17. Jencks. C, Le Corbusier & The Tragic View of Architecture, Harvard Univ. Press, Massachusetts, 1973

A Study on the Later Architectural Intentions of Le Corbusier in Designing the Governor's Place

Lee, Young

(Associate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a recognition that the architecture is based on the process demanded by substantial needs as well as pure theoretical logic system. So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another point of view differentiating process and principle of architecture from pure theoretical logic system in the creative process of the Governor's Palace by analyzing drawings in chronological order. Even though the Governor's Palace had not been built because of discord between authorities of India and Le Corbusier, it is undoubtedly one of the best proposals which contains very concepts and ideas of later Le Corbusier's architectural intentions.

In the first design stage, overall conception of the building was carried out in the sketches and drawings till Jan. 1954 and in the second stage, the elaboration of the project was pursued till Mar. 1955. The scheme tends to begin too large and general in character, becoming tighter and more complex under pressure from the client and adjustments required by the design process itself. For example, scale reduction, divis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l circulation system and applying his early 'Five Points'. So new solutions are searched by oscillating between compromise modifications and radically different solutions in contracting the first ideas.

From all these, it is concluded that the early doctrine (Five Points) are adjusted and extended towards another stage by the use of restricted *pilotis*, the concept of *fenêtre en longueur* transformed into a sub structure of *facade*, sustained concept of *le plan libre*, *les toits jardins* extended towards concept of the urban area.

And these formal intentions of the Governor's Place has been carried through other contemporary projects like Mill Owner's Association in 1954 and Villa Shodan in 1952.